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인문계열

모 집 단 위		수 험 번 호		성 명	
------------------	--	------------------	--	--------	--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총 100점)

제시문 (가)

오늘날 우리는 인간 복제, 안락사, 사형제도, 테러리즘 등 수많은 도덕적인 문제와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올바른 행위를 해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를 피할 수 없다. 도덕적 행동은 인간성의 존엄함과 숭고함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하철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고 정작 자신은 죽어간 젊은 청년의 이야기에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들의 삶에서,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웃에게서 우리는 도덕적 행동을 발견하고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인간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선하게 만드는 것은 결과의 좋음이나 유용함이 아니라 그 행위를 낳은 의지의 선함, 즉 선의지에 있다. 왜냐하면 선의지만이 무조건적으로 선하기 때문이다. 선의지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옳다는 이유만으로, 즉 의무이기 때문에 행위하는 의지를 말한다. 달리 말해서 선의지란 오직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의지이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욕구, 두려움이나 동정심 등의 감정과 같은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도덕법칙을 명령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도덕법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도덕법칙은 인간에게 ‘도덕법칙에 따라 행위하라’는 명령으로 다가온다. 도덕적 명령은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고, 이성적 존재란 자기 의지의 모든 주관적 규칙을 통해 보편적으로 법칙을 수립하는 자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도덕적 명령을 따르는 것은 외부에서 부과된 법칙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존재가 자신의 의지에 의해 스스로 수립한 보편 법칙에 스스로 복종하는 것이다. 즉, ‘의지의 자율’이다. 이성적 존재는 도덕적 존재로서 자유로우며, 그 자유의 본질은 의지의 자율이다.

한 사람이 선택한 주관적인 행위 규칙을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 주관적 규칙이 도덕법칙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의 주관적 규칙이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보편 법칙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이성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이성적 검토를 거쳐 보편 법칙이 될 수 있는 규칙을 자신의 행위 규칙으로 삼아서 그 규칙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 도덕은 우리에게 자신만을 예외로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우리와 타인을 보편적 관점에서 동등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제시문 (나)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속에 썩은 통나무 한 개비를 집어던졌다. 그러나 미처 그 통나무 속에 개미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통나무가 우지직,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별안간 개미들이 떼를 지어 쏟아져 나오며 안간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한다. 그들은 통나무 뒤로 달리더니 넘실거리는 불길에 휩싸여 경련을 일으키며 타 죽어 갔다. 나는 황급히 통나무를 낚아채서 모닥불 밖으로 내던졌다. 다행히 많은 개미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다. 개미들은 좀처럼 불길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지 않는다. 가까스로 공포를 이겨낸 개미들은 다시 방향을 바꾸어 통나무 둘레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그 어떤 힘이 그들을 내버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일까? 개미들은 통나무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리곤 그 많은 개미들이 통나무를 붙잡고 바둥거리며 그대로 죽어가는 것이었다.”

동물학자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지만, 솔제니친의 <모닥불과 개미>를 읽었을 당시에는 나도 개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정말 궁금했다. 자기가 손해보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어떻게 일반화될 수 있는지 이성적으로는 해답을 찾기 힘든 문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 사회에도 있고 동물 세계에도 이러한 이타주의가 존재한다. 나는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런히 정리할 수 있었다. 유전자의 관점에 따르면 살아 숨 쉬는 우리는 사실 DNA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일 뿐이다. 집을 지키기 위해 불길에 뛰어들어 자기를 희생하는 개미들의 행동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명쾌하게 다시 분석하면서 황홀함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황홀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답을 얻은 기분에 세상이 달라 보였는데, 그 단계가 지나니 시간이 지날수록 만사가 시시하게 여겨졌다. ‘그래, 무엇 때문에 난 그렇게 애를 썼나?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를 쓰나? 모든 것이 유전자 때문인데,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것뿐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에서 맥이 풀렸다.

다행히 방향이 길지는 않았고 재해석을 통해 세상의 의미를 정리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일, 해야 할 일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래, 나는 아무 것도 아니야. 지금 없어도 세상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존재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없어질 필요는 없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나의 모든 상황에 온 힘을 다하고 즐기며 사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담담히 가면 된다.’ 그러면 세상도 나도 의미있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한다. 내게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무엇을 해보겠다고 욕심을 부리며 아등바등 살 필요는 없다.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은 어떻게 보면 내 유전자가 나한테 허락한 범주 내에서의 일들이다.

제시문 (다)

Come on, let’s examine our consciences, let’s listen to our hearts. We know very well who you are; we know very well that you are all brave men! We know very well that your souls are full of the joy and the glory of giving your lives for the great cause; we know very well that you feel you’ve been selected to die meaningfully and magnificently and that each of you is dedicated to your part in the triumph. You are not alone in this world. There are other beings you have to think of. You must not be selfish.

Citizens, do you picture the future to yourselves? Citizens, where are we headed for? We are headed for the union of peoples, we are headed for the unity of mankind. France will see the brilliant future in its history. Citizens, whatever happens today, through our defeat every bit as much as through our victory, we will bring about a revolution. Just as big fires light up the whole city, revolutions light up the whole human race. And what revolution are we going to bring about? I just told you: Liberty, Equality, and Fraternity*. We do not doubt our cause even if we doubt our success. Help is evidently on the way. But, whether the civil army comes to help us or not—what does it matter! Let’s get killed here to the very last man!

Friends, the moment we have reached, this moment in which I’m speaking to you is a cruel moment. But this is the terrible cost of the future. A revolution is a toll**. Oh! the human race will be liberated, lifted up, and relieved! We swear to it on this barricade***. Where will the cry of love go up from if not from the height of sacrifice? Oh my brothers, this is the very spot where



those who think and those who suffer come together as one. Here, suffering meets the ideal. Here, the day embraces the night and says to it: I am going to die with you, and you are going to be born again with me. From this embracing of all sorrows springs faith. Suffering brings its pain here, and ideal brings its eternity. This pain and this eternity are going to combine and compose our death. Brothers, whoever dies here dies in the glory of the future, and we will enter a grave entirely lit up by dawn.

* fraternity: 박애 ** toll: 통행료 *** barricade: 바리케이드

제시문 (라)

한 연구팀이 2021년 말 모 도시에서 무작위로 고등학생 1,000명을 뽑아 가치관과 시간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나의 미래는 나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에 동의한 학생들(A 그룹)과 ‘나의 미래는 나의 타고난 재능에 따라 결정된다’에 동의한 학생들(B 그룹)로 구분했다. <표 1>은 각 그룹 학생들의 2021년 ① 월평균 공동체 봉사 시간, ② 월평균 자기개발 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한편, 이 도시의 교육 당국은 2022년부터 공동체 봉사 시간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연구팀은 방침 변경 후 2022년 말에 A 그룹 학생들의 ① 월평균 공동체 봉사 시간, ② 월평균 자기개발 시간을 다시 조사했다. 방침 변경 후 공동체 봉사 시간 상위 50% 학생들(A-1 그룹)과 하위 50% 학생들(A-2 그룹)의 조사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그림 1>은 A 그룹과 B 그룹의 2021년 ‘생활의 즐거움’ 정도(100점 만점) 조사 결과, 그리고 A-1 그룹과 A-2 그룹의 2021년 방침 변경 전과 2022년 변경 후 ‘생활의 즐거움’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비교를 위해 다른 요소들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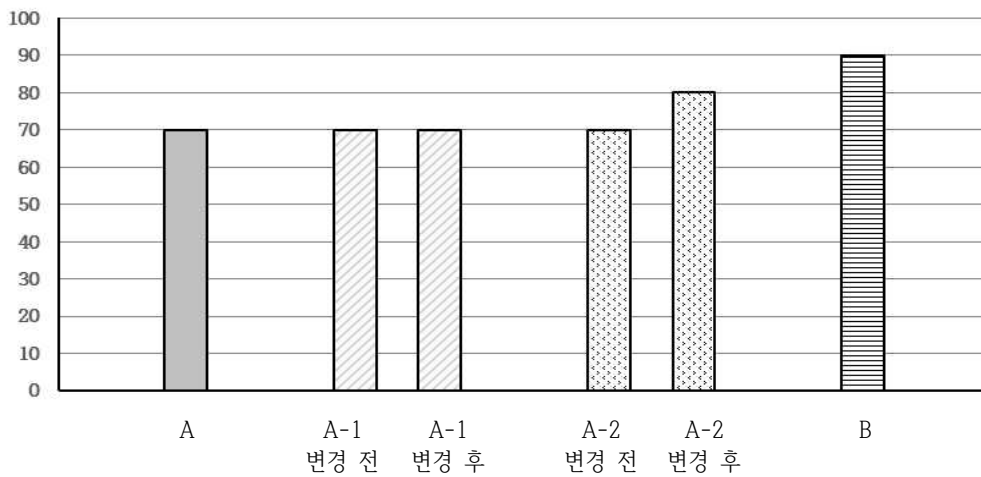
<표 1> A 그룹과 B 그룹의 조사 결과

	공동체 봉사 시간	자기개발 시간
A 그룹	20	10
B 그룹	10	20

<표 2> A-1 그룹과 A-2 그룹의 방침 변경 전과 변경 후 조사 결과

	방침 변경 전		방침 변경 후	
	공동체 봉사 시간	자기개발 시간	공동체 봉사 시간	자기개발 시간
A-1 그룹	20	10	18	12
A-2 그룹	20	10	14	16

<그림 1> ‘생활의 즐거움’ 정도



[문제 1-1] 제시문 (다)를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각각 설명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문제 1-2] 아래 [지문 A]를 읽고 제시문 (가)의 관점과 비교 설명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지문 A]

도덕에서는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한데, 이성만 참이나 거짓을 밝히거나 사물의 원인과 결과를 따질 수 있을 뿐 어떤 의욕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반면, 감정은 행위를 직접 유발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이때 오로지 자신만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은 도덕적 구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의 개인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떠나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을 가져야 한다. 그는 인간 본성 안의 보편적 원리를 움직여, 모든 인간이 거기에 화답할 수 있는 소리를 내야 한다. 인류애가 허영심이나 야망처럼 그렇게 강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을지 모르나, 그것은 모든 인간이 공유한 것으로서 유일하게 도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성은 우리의 감정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알려줌으로써 도덕적 행위자에게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다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는 행동은 연민의 감정에서 나오지만 그 사람을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은 이성으로 강구할 수 있다.

[문제 2-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를 분석하고 설명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문제 2-2] 어떤 국가에서 인구의 60%는 이타적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며, 나머지 40%는 이타적 기질 없이 태어난다. 타고난 이타적 기질의 유무는 헌혈, 장기기증, 자원봉사 등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비율에 영향을 준다. 이타적 기질을 타고난 사람 중 60%는 항상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적절한 정책이 시행되면 최대 75%까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다. 반면, 이타적 기질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 중 20%만 항상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적절한 정책이 시행되어도 최대 25%까지만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다. 이 국가에서 전체 인구 중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의 최솟값을 P , 최댓값을 Q 라고 하자. 이 국가의 정부는 공동체 활동 촉진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가 가능한 역량의 $100x\%$ (단, $0 \leq x \leq 1$)를 그 정책에 투입하면, $g(x) = x^4 - 8x^2 + 11x$ 만 규모의 재정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그 정책을 통해 공동체 활동 참여 인구 비율은 $P + x(Q - P)$ 가 되고, 참여 인구 비율에 비례하여 사회적 편익 $f(x) = 100\{P + x(Q - P)\}$ 가 발생한다. 정부는 공동체 활동의 편익에서 정책 비용을 뺀 $y = f(x) - g(x)$ 가 최댓값을 갖도록 x 를 정한다. 정부가 선택하는 x 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활동 참여 인구 비율에 관한 결과를 제시문 (나)와 연결지어 해석하시오. (글자 수 제한 없음, 25점)

